



ESG의 중소기업 영향 및 이슈

- 전남대 발표용 -

유인식 팀장/공학 박사

경영전략그룹 전략기획부 ESG경영팀
(yuinsik@ibk.co.kr)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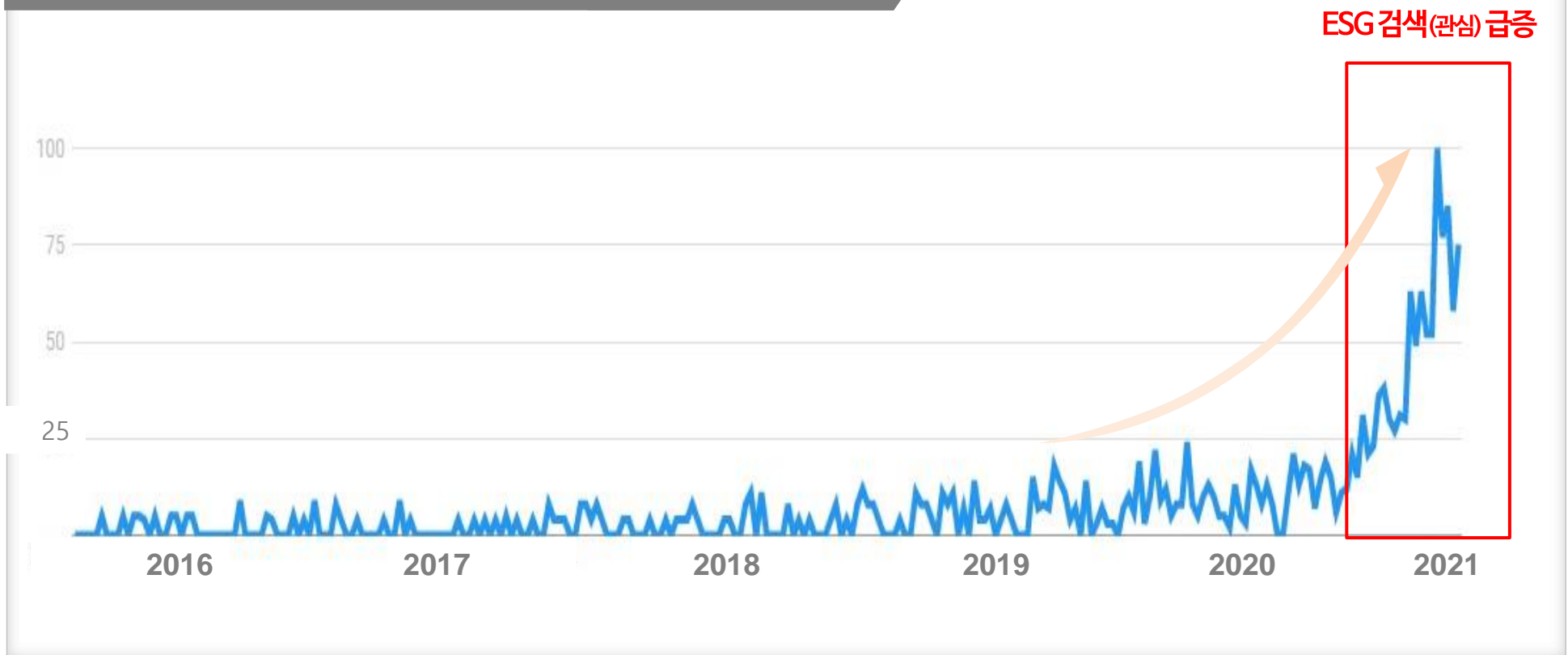
- ① ESG경영 열풍 이유와 전망
- ② ESG투자 현황 및 전망
- ③ 중소기업 ESG영향 및 이슈



ESG경영, 언제 급부상?

- '20년 이후, 쏠 세계 "ESG" 검색량의 폭발적 증가세 ➡ '21년 글로벌 최대 경영이슈

구글트렌드를 통해 본 '16년 이후 전 세계 ESG단어 검색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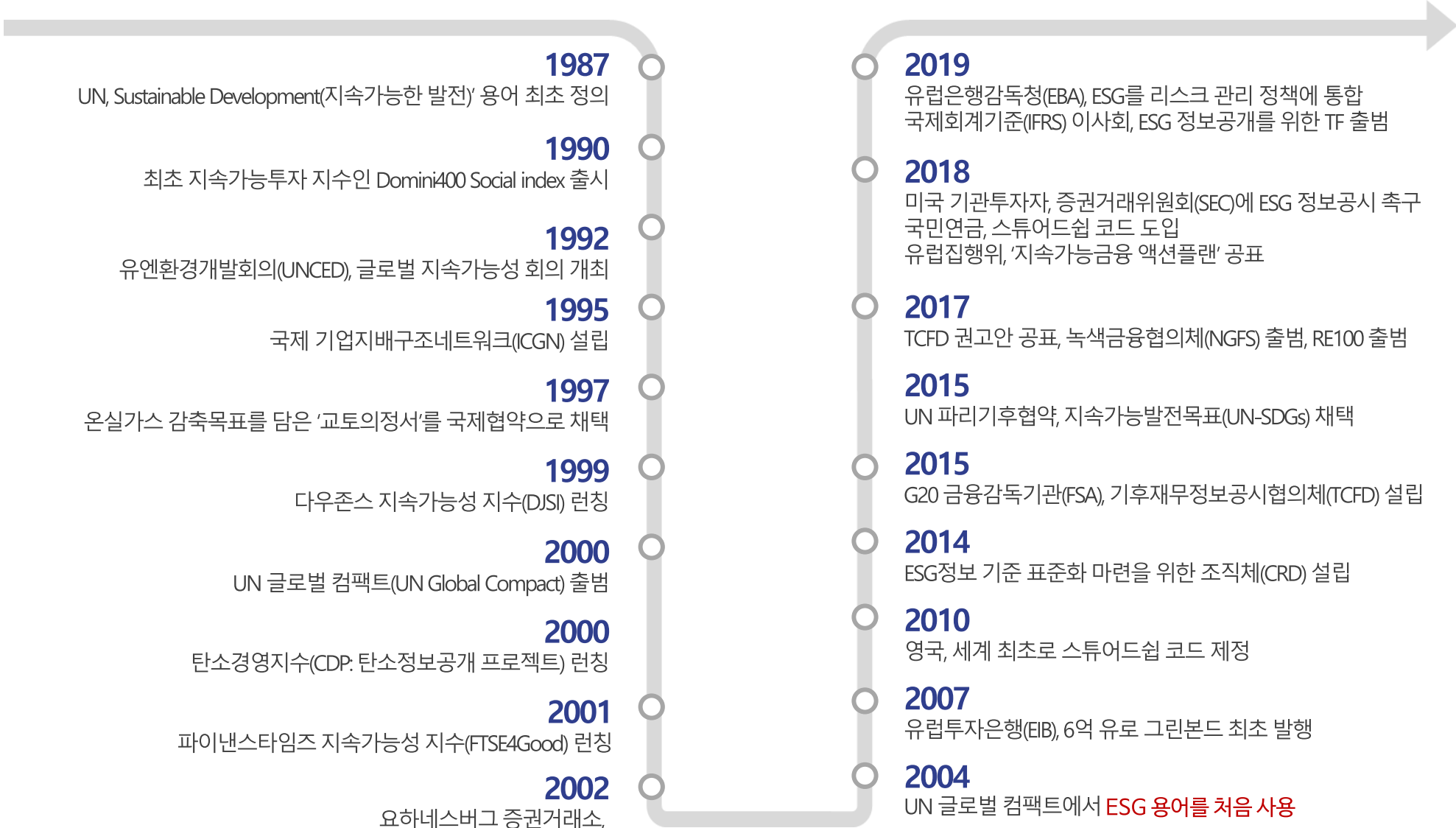


출처: Google trends, 2021.3



ESG경영은 新 경영기법?

- ESG는 1987년 개념 정립, '04년 사용시작된 용어 → **新 경영기업이 아닌 재조명 이슈**





재조명의 결정적 계기?

- '19년 8월, 美 CEO 181명(BRT)은 기업 목적을 변경하는 성명발표

☞ 기업은, **주주 이익 극대화가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할 때 지속가능**



제프 베이조스



팀 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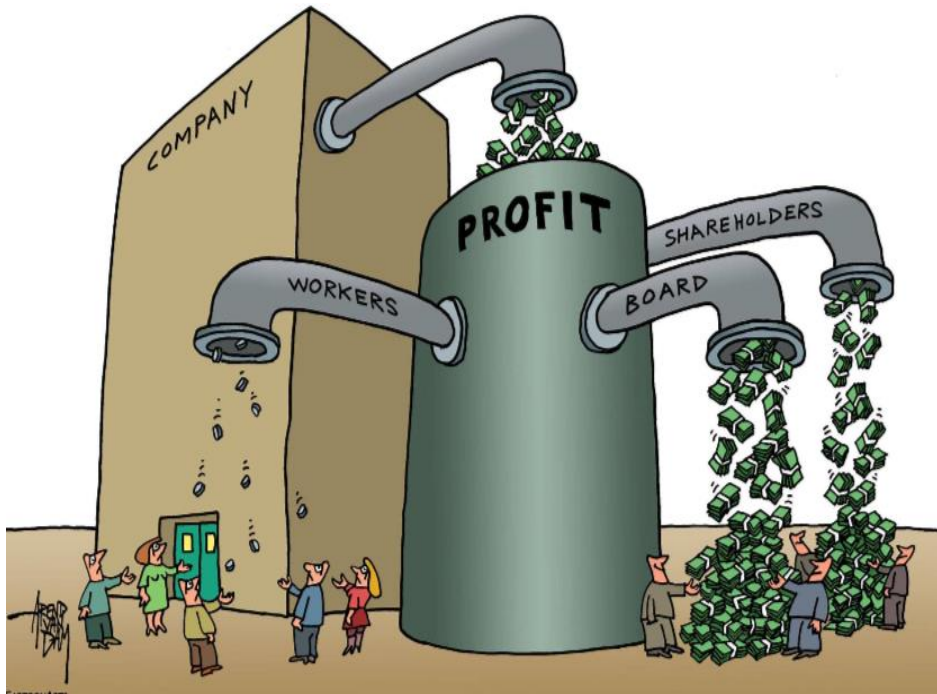
美 CEO 181명이 서명한 성명서 주요내용

- ① 기업 결정은 더이상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쳐서는 안돼
- ② 기업은 고객, 직원, 납품업체, 사회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고려해야
- ③ 기업은 이해당사자를 위한 근본적 책무를 공유하고 가치를 창출해야
- ④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보상·교육 등 직원 투자를 강화해야
- ⑤ 공정하게 납품업체를 대하고, 주주를 위한 장기적 가치를 창출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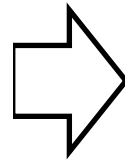


제조명의 결정적 계기?

- "Shareholder Capitalism"에서 "Stakeholder Capitalism"으로 경영 패러다임 전환



이미지 출처 : Japan Times



이미지 출처 : Walt Street Journal



제조명의 결정적 계기?

- 다보스포럼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용어사용** 및 **ESG를 기업 생존 이슈**로 제시
-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공감대 형성

매일경제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A06면 중상

“ESG가 기업 성패 갈라”... 61개 세계 초우량기업 동참 선언

(환경·책임·투명경영)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세션
투자자들, 사회공헌능력 중시
기업간 성과격차 크게 벌어져

BoA·네슬레·IBM·유니레버
환경 등 경영핵심 지표 도입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네슬레 IBM 등 61개 글로벌 기업이 세계경제 포럼(WEF·다보스포럼)이 제시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표(SCM·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를 경영 핵심 지표로 삼는다.

26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 사무국은 이들 61개 글로벌 기업이 이 지표를 경영에 도입해 환경과 경영 투명성 등 비재무적 성과도 함께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은 “기업이 재무사항뿐 아니라 환경·책임·투명 경영(ESG) 관련 보고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 구축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SCM은 성장(progress) 사람(people) 지구(planet) 지배구조(governance)를 핵심 키워드로 한 21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급여 변동, 이사회 다양성 등이 지표에 포함된다. 클라우스 슈바브 다보스포럼 회장이 주창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 이익만 중시하는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의 대립 개념으로 제시됐다. 기업 이익과

26일(현지시간) 영상으로 열린 ‘다보스 어젠다 2021’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행(Implementing Stakeholder Capitalism)’ 세션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피어낸셜타임즈 칼럼니스트, 마이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브라이언 모이니옴 BoA CEO,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Stakeholder Capitalism

A Global Economy that Works for Progress, People and Planet

Klaus Schwab
with Peter Vanham

WILEY

주주 가치 최대화를 기업 최고 목표로 삼는 주주 자본주의는 단기 이익에 대한 기업 집착을 불렀고 양극화 같은 사회 갈등이나 환경문제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뿐 아니라 소비자 근로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아우른다. 이 지표가 주요 글로벌 기업에 의해 시행되면 ESG를 비롯한 SCM이 기업 경영에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보스포럼은 지난해 말에도 ‘다보스 선언 2020’을 통해 기업 성과가 주주에 대한 수익뿐 아니라 ESG를 달성했는지

에 의해서도 투명하게 측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언에는 다보스포럼 최고위급 리더 100여 명으로 구성된 국제비즈니스위원회(IBC) 멤버를 중심으로 금융 정보기술(IT) 컨설팅 소비자 등 다양한 부문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이해관계자 관련 보고에 ESG 등 핵심 지표를 반영하며 협력 기업에도 이 지표 도입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

브라이언 모이니옴 BoA 최고경영자(CEO) 겸 IBC 의장은 “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우선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

은 단순히 돈을 벌 수 있는 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핑크 회장은 “지난해에 걸쳐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했는데 이는 기업가치 투자자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의 최약의 성과를 거둔 기업 어지고 있다”며 “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도입한 기업이 회

이 바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상으로 열린 ‘다보스 어젠다 2021’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행(Implementing Stakeholder Capitalism)’ 세션에서는 슈바브 회장 진행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행 자본주의 체제를 점검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세션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모이니옴 CEO, 마이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CEO,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등이 참여했다. 슈바브 회장은 “기업의 힘

은 단숨에 돈을 벌 수 있는 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핑크 회장은 “지난해에 걸쳐 투자자들의 투자 방향했는데 이는 기업가치 투자자 사고방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의 최약의 성과를 거둔 기업 어지고 있다”며 “이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도입한 기업이 회

정립하고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더 나은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주연 기자



왜 기업목적을 바꾸는가?



이미지 출처 : IISD.org



왜 기업목적을 바꾸는가?

- 최근 기성세대에 대한 MZ세대*의 적극적 행보

- * 사회적 공정을 중시, 원칙을 무시하는 기업을 외면하고, 착한기업에 열광하며, ESG 실천기업이 자신과 자녀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고. 나쁜 기업을 몰아내기 위한 연대도 서슴지 않음





ESG경영이 재조명을 넘어 확산, 정착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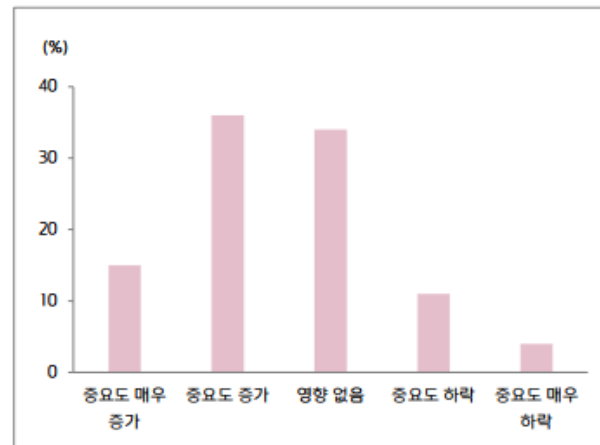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불균형 확대, 그린뉴딜 정책 추진으로 ESG 확산

Pre COVID-19	
ESG의 주요 주제	
Environment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 환경오염 - 생물 다양성 - 자원 및 폐기물 관리 - 에너지 효율
Socia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만족 - 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 인권, 성별 및 다양성 - 지역사회 관계 - 공급망 관리
Governance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구성 - 감사위원회 구조 - 뇌물 및 부패 - 로비 및 정치 기부금 - 기업윤리

COVID-19
코로나19의 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섣다운 • 화석연료 수요 감소 • CO₂ 배출 감소 • 대기환경 개선 • 비대면 확산 • 도시 및 국가 락다운 • 이동 제한 • 임직원 감염 • 지역사회 감염 • 고객 가치 변화 • 본원적 가치 중시 • 공급망 붕괴 • 비상경영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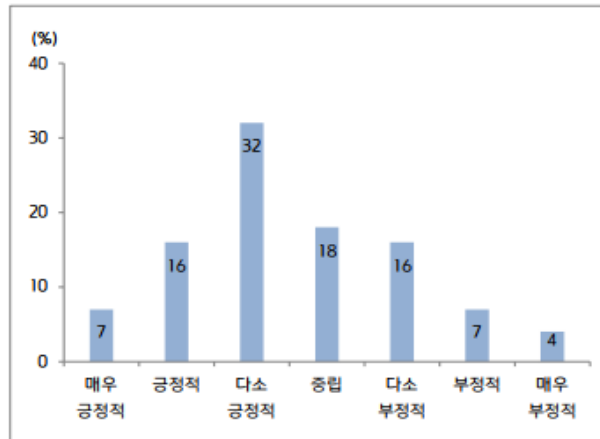
With·Post COVID-19
ESG 경영 트렌드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t Zero • 순환경제 • RE100 • 친환경 운송 • 신재생에너지 • 사회공헌활동 • 개인정보보호 • 협력사 기술 지원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스마트 공장 구축 • 직원 건강 및 안전 관리 • 내부회계관리 강화 • 기업지배구조공시 확대

코로나 사태가 지속가능성의 중요도에 영향을 미쳤는가?



자료: Bain & Company, 키움증권 리서치
주) 글로벌 식품공공급망 경영대표 146명 조사 결과 (20년 8월)

향후 3년 간 코로나가 ESG 투자 모멘텀에 미칠 영향?



자료: J.P. Morgan, 키움증권 리서치

IDK ESG경영이 재조명을 넘어 확산, 정착 계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불균형 확대, 그린뉴딜 정책 추진으로 **ESG 확산**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기후변화·에너지·환경 공약

- ▶ 파리기후협정 복귀 (2020년 11월 4일 탈퇴)
- ▶ 세계 기후정상회의 소집, 기후협력 리더십 회복
- ▶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 제로(탄소 중립) 달성
- ▶ 100% 청정에너지와 무공해 차량 지향
- ▶ 대기 중 온실가스 포집·격리 기술 개발
- ▶ 기후문제 해결 수단으로서 원자력 타당성 조사
- ▶ 2035년까지 건물 부문 탄소 배출 50% 저감
- ▶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 곳 이상 설치
- ▶ 기업 환경정보 공개, 안전한 식수 공급
- ▶ 2030년까지 국토·수역 30% 보호구역 지정
- ▶ 2차 철도혁명으로 안전한 철도시스템 구축



現 온실가스
배출 추세 지속시
기후위기 극복 불가



올해 ESG 화두는?

'21년 ESG 중 ESG정보공개와 함께 가장 큰 비중은 환경(E)

해 외

- ESG** ① ESG정보공개 표준
- E** ② 기후법, 지속가능금융 계획
- E** ③ 탄소국경세 도입
- E** ④ 기후금융 확산
- E** ⑤ 플라스틱 규제 도입
- E** ⑥ 생물다양성 관련 금융
- G** ⑦ 스튜어드십과 주주행동주의
- S** ⑧ 공급망책임, 인권보고 의무화

국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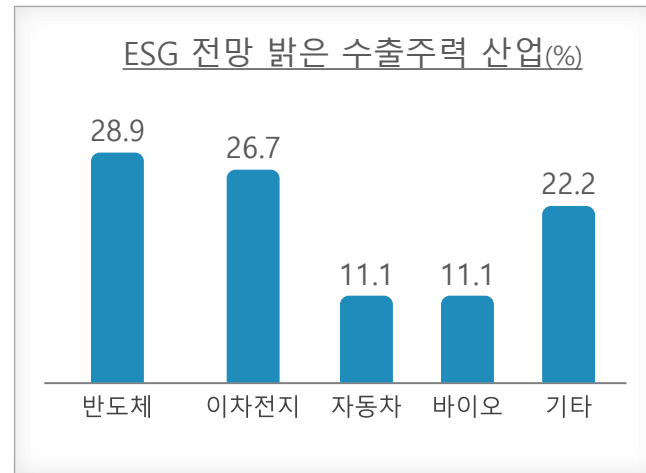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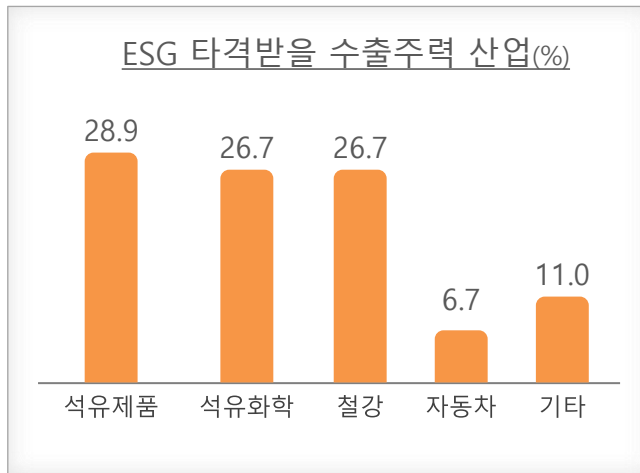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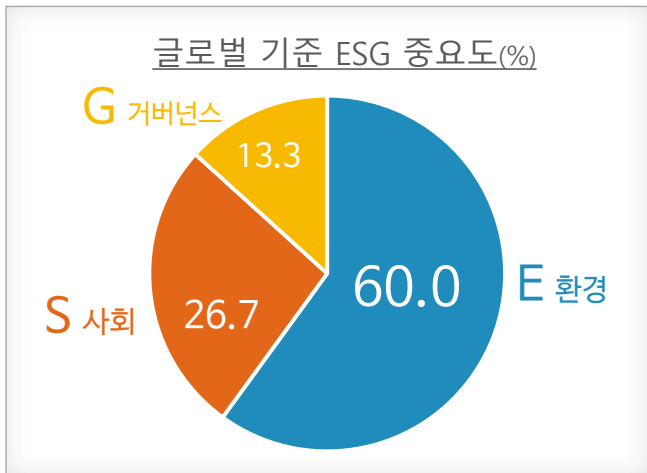
- ESG** ① 금융위 ESG 정보공개 의무화
- ESG** ② ESG채권 발행 활성화
- E** ③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기시행
- E** ④ 2050년 탄소중립 선언
- E** ⑤ 금융권 탈석탄 선언
- E** ⑥ 환경부 녹색분류체계 구축
- G** ⑦ 여성이사 할당제
- G** ⑧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특히 중요한 것은?

특히, 환경(E) 중 기후변화 대응이 '21년 ESG 핵심 아젠다지만

- 어떻게 ESG경영을 해야하는지, 무엇을 고려해야하는지 중심을 못잡고, PR·CSR로만 보는 기업이 다수. 특히 중소기업이 문제



국내기업 ESG 대응수준은(10점 기준)

7점 (대기업) vs 4점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여력 확보 필요 ”

목 차

- 1 ESG경영 열풍 이유와 전망
- 2 ESG투자 현황 및 전망
- 3 중소기업 ESG영향 및 이슈

누가 기업의 ESG경영을 요구하는가?

국민연금 2년내 운용기금 50% ESG에 투자

김용진 이사장 콘퍼런스서 밝혀

2024년 해당자산 500조 전망

ESG투자 아직 적용 안된
해외주식·국내債에 집중

문지웅 기자 입력 : 2020.11.09 17:38:55 수정 : 2020.11.09 17:38:55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로드맵에 따라 투자하면 ESG 요소를 반영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액은 50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도 ESG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친환경, 탄소 제로 등 공약을 내세운 민주당 후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연금 투자 등 글로벌 자본 시장 큰손은 물론 개미투자자들에게도 ESG 투자를 크게 늘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국민연금 ESG 투자 확대 로드맵

2013년 3월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 내 책임투자팀 신설
2014년 8월	책임투자 가상펀드 운용
2015년 11월	사회책임투자형 펀드 신규 벤치마크지수 도입
2015년 12월	국내 주식의 ESG 평가모형 구축
2016년 4월	기금운용지침에 책임투자 관련 조항 마련
2019년 1월	수탁자책임실로 조직 확대 개편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은행 “환경 오염 기업에 대출 안겠다” … 여신도 투자도 ESG 중심 재편

국민은행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담당 부서는 요즘 영국 런던으로부터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달 초 ‘적도 원칙(Equator Principles) 대규모 사업이 환경·사회에 영향을 줄 경우 참여하지 않겠다’는 국제협약) 기업을 위해 신청서를 냈기 때문이다. 이 협약은 런던에서 실사 중이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RE100(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협약) 가입 신청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할 계획”이라며 “다음달부터 여신과 투자-에너지 전략이 바뀌고 이에 따라 기업 평가와 자금 지원의 틀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ESG 시계를 빠르게 돌리고 있다. 올해 초 4대 금융지주(한 KB 하나 우리) 회장들은 신년사에서 일제히 ESG를 새해 경영 키워드로 내걸었다. 각 계열사 실무 부서도 분주해졌다. 올해부터 금융사가 기업 여신을 평가할 때도 ESG 요소를 상당 부분 반영할 전망이다. 금융 기법이 ESG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산업계의 자금 흐름도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변화, 달보 가지에도 직결”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들은 올해 상반기부터 대규모 인프라·프로젝트 참여 시 ESG 요소를 고려해 평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적도 원칙’에 가입했고, 이에 따라 사업 평가 체계를 개편했다. 이후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이르면 올해 기업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은행은 그동안 프로젝트 규모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해 왔다. 한 시중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담당 임원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수천억원, 수조원 규모이기 때문에 약한



금융사 ESG 경영 산업계 돈 흐름 바꾼다

“재무제표 중심 평가 시대 지났다” 기후 변화 영향 따라 신용 재산정 친환경 저해 사업엔 참여 중단

4대 은행, 임원 평가에 ESG 반영 이사진에도 전문가 포진 가능성 “ESG 기업 발굴이 은행 경쟁력”

의 수수료만 받아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거나 석탄 원료 등을 사용하는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은 수익성과 상관없이 대출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프로젝트별 리스크 등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17개 자회사의 ESG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 ESG 통합 체계’를 수립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여신과 투자를 결정하는 기준도 대폭 변경된다. 시중은행의 한 ESG담당 임원은 “기준에는 재무지표 중심의 신용등급과 거래 이력만 뒀지만 앞으로는 ESG 평가가 나쁘면 재무 구조가 좋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새로 받거나 증액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 국민은행 ESG기획부장은 “최근 몇 년 새 산책, 폭우, 폭설 등 이사진구

ESG로 변화하는 은행권 경영 전략

대출	ESG 실적 저조한 기업에 신규 대출금지 증액 불허 기후 변화 영향 여부에 따라 신용 등급 재평가
인프라·프로젝트	석탄 발전 등 친환경 기조에 저해되는 사업 참여 중단
인사 평가	ESG 개선을 가로 막는 사업에 투자 용자 해주면 불이익 개별 임원 평가 신규 임원 선임에 ESG 요소 반영
이사진 구성	ESG 이해도 높은 사외 이사 우선 선임
상품 판매	탄소 저감 노력을 하는 금융소비자에 금리 우대 판매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착한 금융’ 상품군 확대
채권 발행	사회적 기여를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채권 소액본드 발행 친환경 사업 투자를 위한 ‘그린본드’ 발행 추진

자료: 각 은행

가 이어지는데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면 관련된 기업의 자산이나 수익에 영향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은행의 담보 가치도 하락할 것”이라며 “은행들도 기후 변화를 고려해 새로운 신용 평가를 만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SG 알아야 임원 된다”

4대 시중은행은 일제히 임원 평가에 ESG 지표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담당 실무에서 ESG 기준과 맞지 않는 대출 또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상품 등을 기획·판매하는 행위 등은 긍정적인 평가 요인이다. ESG 이해도가 높아야 임원이 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각 금융사 이사진에도 ESG 전문가가 포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지주들이 ‘ESG 경영’을 대표 전략 키워드로 내

세운 만큼 이름 감독·보좌하는 이사진도 이해도가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KB금융 우리사주조합이 “ESG 전문 이사가 필요하다”며 외부 인사로 이사로 추천해 주주총회에서 대립하기도 했다.

은행 등 금융사의 ESG 경영은 산업계의 ESG 바람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원활한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경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로서도 환경·사회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게 장기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ESG에 충실한 기업을 얼마나 많이 발굴하고 고액으로 확보하는지가 각 은행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가 왔다”며 “금융권의 대출, 투자 포트폴리오가 ESG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소리/김대홍 기자 ram@hankyung.com

- 수兆 투자한 강릉·삼척발전소...손해 떠안고 '강제폐업' 될 수도



<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은... > 포스코에너지와 두산중공업 등이 출자한 삼척블루파워가 강원 삼척시 맹방 해변 인근에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한경DB

NFC www.newsfc.co.kr > news

"ESG 열풍 때문에"...6개 증권사, 삼척발전소 회사채 발행으로 곤욕 - 금융....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NH투자증권(대표이사 사장 정영채)이 1억8천만원을 벌려다 전량 미매각된 회사채를 떠안는 것은 물론 환경단체와 강원도 삼척주민들로부터 맹비난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삼척지역에 석탄발전소를 짓기위해 포스코 등이 만든 법인인 삼척블루파워는 지난달 17일 1천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2021.07.06.

zdnet.co.kr > view

삼척화력 자금 조달 '불투명'...자산운용 18社 회사채 인수 거부 - ZDNet ko...

금융권에 '탈(脫)석탄' 바람이 불면서 포스코가 강원 삼척에 구축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출자사인 삼...

2021.0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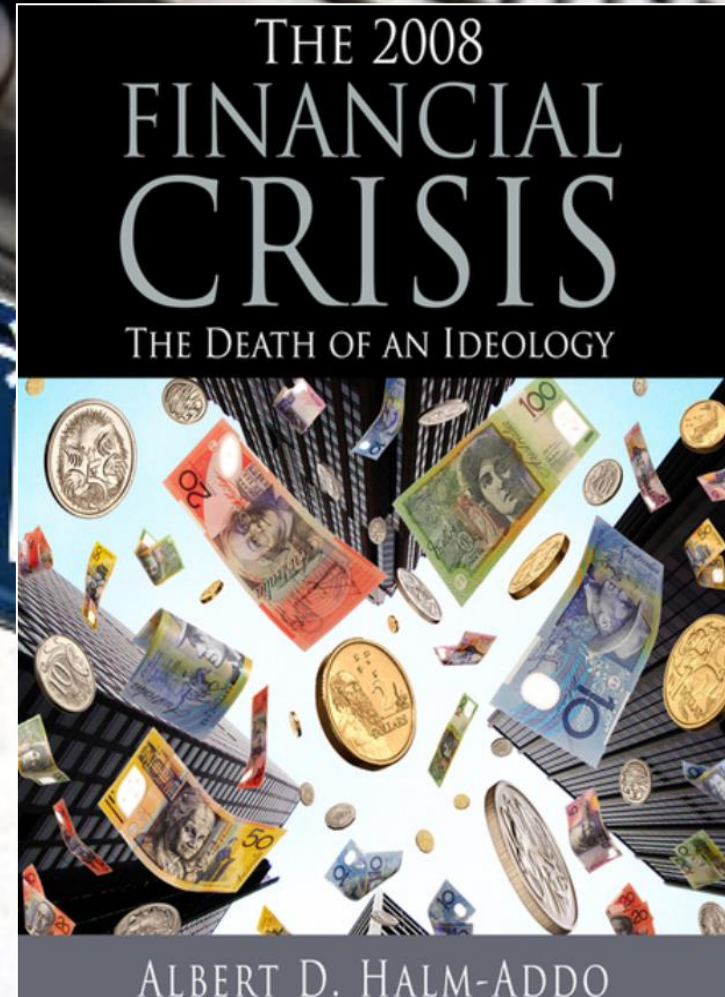
ET www.electimes.com > article

자산운용사 86.7%, 삼척석탄화력 투자 안 한다 - 전기신문

[전기신문 윤대원 기자] 국내 18개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5일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는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자산운용사들을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하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

2021.02.05.

ESG을 보는 금융의 두 시선!





금융의 요구로 각국의 ESG 정보공시 법제화

국가별 ESG 정보공시 의무화 도입 현황

국가	관련 규정	비고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E)·사회(S) 정보를 포함한 ESG 정보의 거래소 자율공시 활성화 & 단계적 의무화 추진 1단계 (~'25년): ESG 가이드선 제시 및 자율공시 활성화 ▶ 2단계 ('25~30년): 일정규모 이상 상장사에 대해 의무공시 적용 ▶ 3단계 ('30년~): 쉐 코스피 상장사 의무 공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G)는 '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거래소 공시를 의무화, '26년 부터 쉐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年 20% 증가 목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여름에 확정되는 국가 성장 전략에 ESG 의무공시 제도를 포함시킬 계획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에서 제시한 기준 참고할 예정 - 더불어 기업이 ESG 요소를 고려한 조직을 신설·운영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냈는지 측정하는 지표도 만들 예정 	투명한 ESG 경영 공시를 통해 글로벌 녹색 투자자금 유입 유도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홍콩 내 금융기관, 상장 기업들에 TCFD 기준에 맞춰 ESG 정보공개 의무화 계획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부터 공공의 이익 관련 규모가 큰 상장기업에 대해 주요 ESG 팩터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 2021년 3월부터 역내 활동하는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SFDR)' 의무화. 2025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11월, 모든 상장기업에 대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 계획 발표 - 2025년까지 모든 상장기업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 지구온난화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 위기 관리 방안, 기업 지배구조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시해야 함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ESG 자율공시를 시행 중. 다만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라 변화 가능성 확대 - 2020.11월 블랙록 CEO는 미국도 영국과 같은 ESG공시 의무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S&P 500 기업 중 90%가 지속가능경영 보고 (2020)

자료: 키움증권 리서치 정리



ESG투자 이유?

ESG 리스크 사건 발생 및 주가 흐름

ESG 리스크 사건 명	사건 유형	사건 발생일	리스크 발생 기업	사건 발생 후 1개월	사건 발생 후 3개월	사건 발생 후 1년
Energy accounting Scandal	회계부정 사건	2001-08-14	Enron	-22.3	-78.1	-99.6
Telecommunications accounting Scandal	회계부정 사건	2002-03-11	WorldCom	-30.8	-82.8	-98.9
Upper Big Branch Mine explosion	광산폭발 사고	2010-04-05	Massey Energy	-36.1	-51.9	28.1
Deepwater Horizon oil spill	기름유출 사고	2010-04-20	BP	-18.5	-39.6	-29.6
Automobile airbag recall	에어백 리콜 사태	2014-01-21	Takata	-4.4	-23.4	-52.2
Nut Rage Scandal	오너리스크	2014-12-05	대한항공	0.9	9.4	-34.7
Pharmaceutical accounting Scandal	회계부정 사건	2015-08-05	Valeant	-12.0	-62.7	-91.5
Automobile emissions Scandal	배출가스 조작 사건	2015-09-17	Volkswagen	-27.6	-19.5	-22.4
Samba Scandal	회계부정 사건	2018-05-02	삼성바이오로직스	-12.8	-24.0	-30.3
Burning Sun Scandal	오너리스크	2019-02-26	YG 엔터테인먼트	-23.9	-39.6	-31.3
Boohoo Scandal	노동/인권조건 폭로	2020-07-05	Boohoo	-6.5	24.5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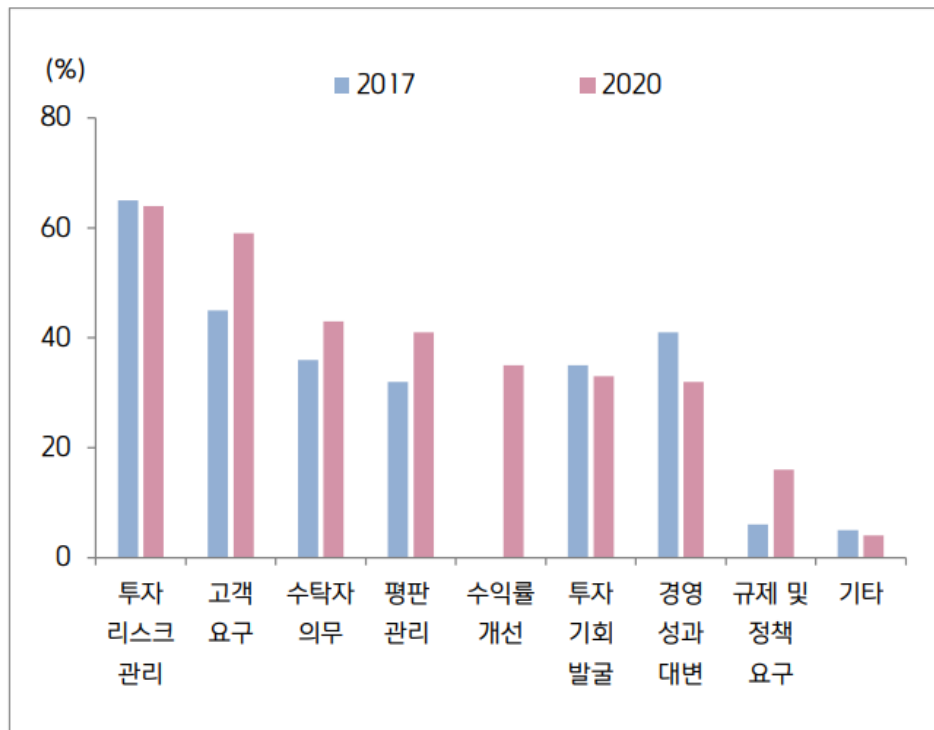
자료: Morgan Stanley 참조,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

주) 사건 발생 후 수익률은 해당종목 거래소 현지통화 기준으로 산출, Massey Energy는 '10년 4Q부터 매각소식에 주가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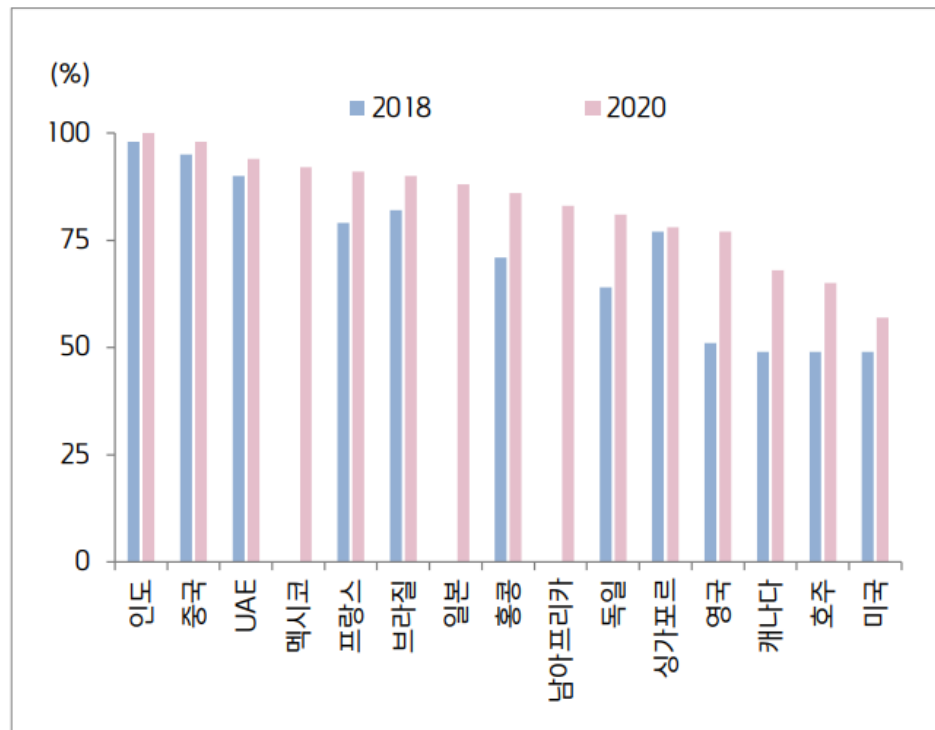
ESG투자 이유?

투자 과정에서 ESG 이슈를 고려하는 이유는?



자료: CFA Institute, 키움증권 리서치, 주) '20.3월, 2,800 여명의 투자 전문직/현역(기업 고위간부, ESG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CFA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

리테일 투자자들도 ESG 투자에 관심 확대



자료: CFA Institute, 키움증권 리서치, 주) '19.10~11월, 전세계 4,400 여명의 투자 고객들(리테일 투자자 3,525명, 기관 투자자 921명으로 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



ESG투자 이유?

ESG지수와 일반지수 투자수익률



Figure 1: ESG leading funds outperform conventional funds, according to the MSCI Emerging market index comparison (2019) - Source: [Bloomberg](#).

출처: ESG and Sustainable Investing Report, Morgan Stanley, '20.5

코로나19 기간 중 ESG지수와 일반지수 투자 수익률

ESG outperformance amid COVID-19 crisis

67 stocks of European members are more resilient in the view of inves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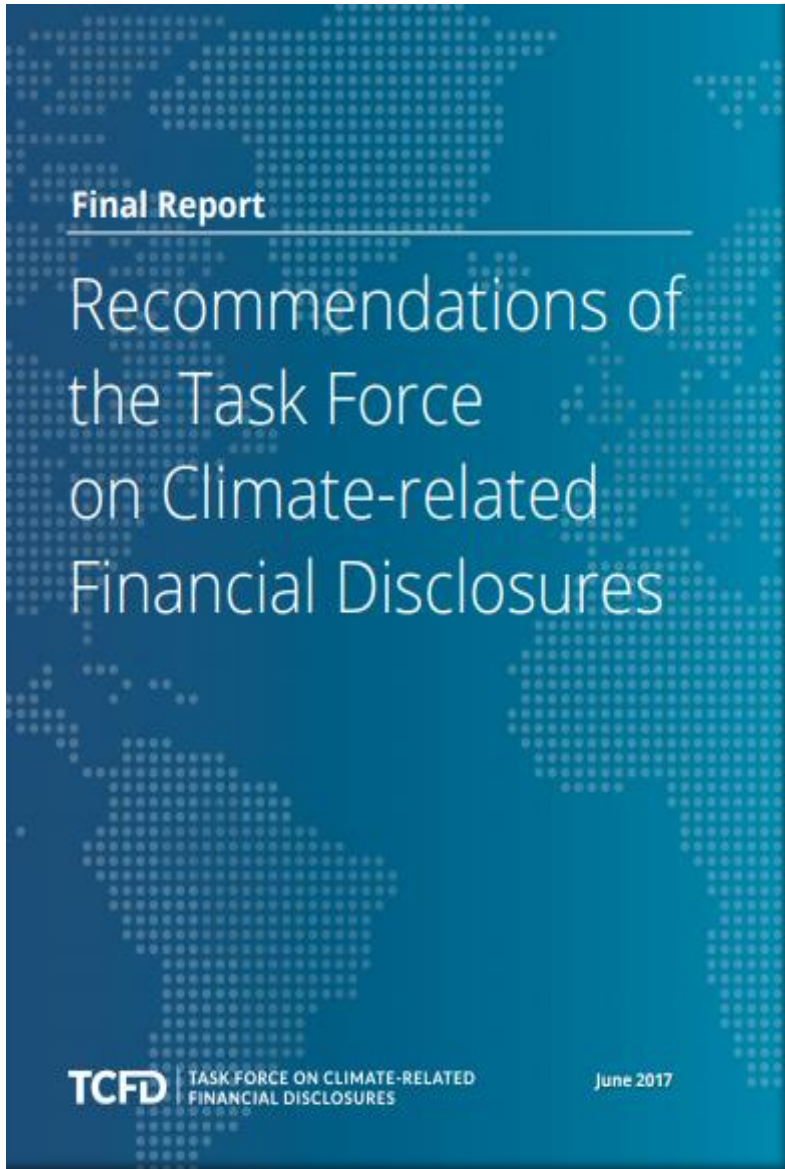
Significant better performance in the bearish market: reflecting investor confidence in European members



Figure 2: WBCSD index funds -all with integrated ESG frameworks- outperform conventional funds and indexes during the COVID-19 crisis. Case study from WBCSD index and Euro Stoxx 50 Benchmark between 1/1-2020 and 17/4-2020. Data source: [WBCSD](#).



금융, '17년부터 ESG를 진지하게 보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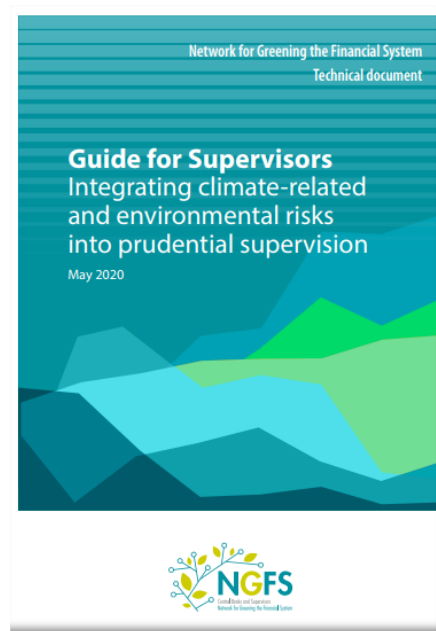


은행을 위한 보충 지침

은행은 대출 및 단기, 중기 및 장기 기타 금융 중개 영업 활동에서의 (전환 및 물리적) 기후 변화 관련 위험의 영향 평가에 사용된 지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된 지표는 신용 노출, 보유 주식 및 채권 또는 거래 포지션에 관련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산업¹⁶
- 지리
- 신용 상태(예: 투자 등급 또는 투자부적격 등급, 내부 평가 시스템)
- 평균 만기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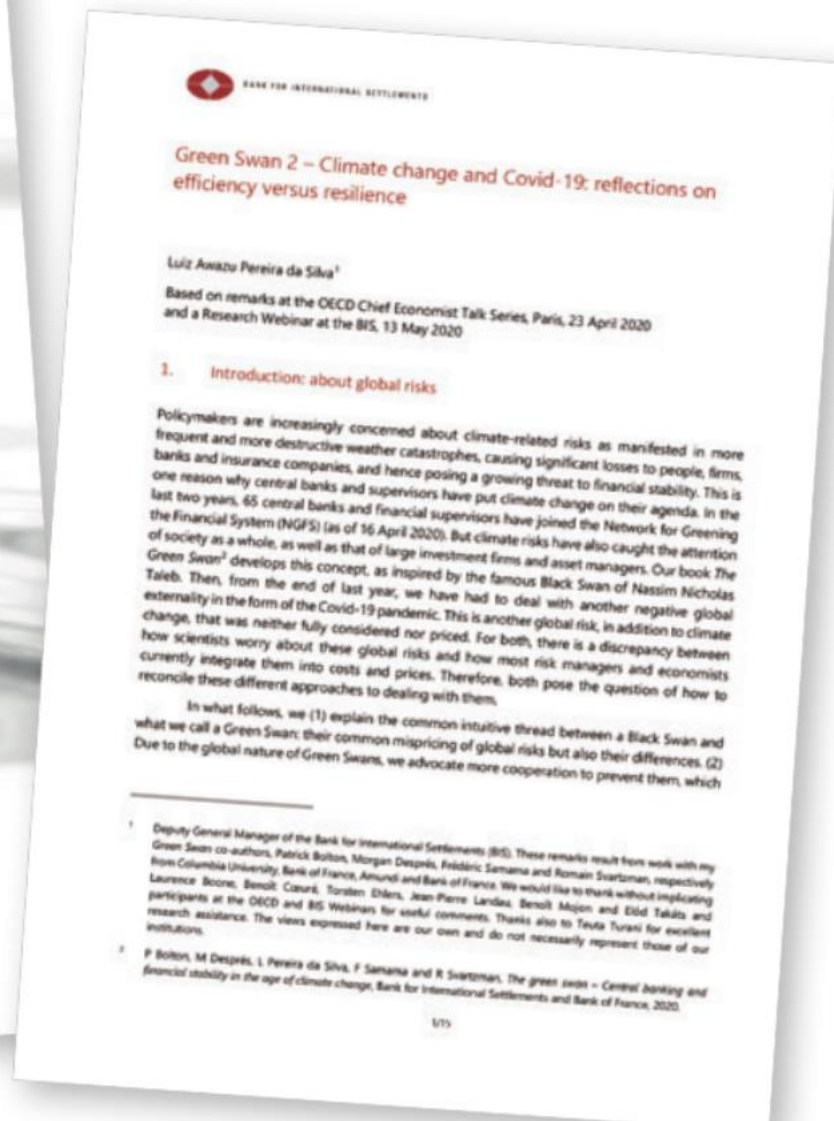
은행은 탄소 관련 자산의 금액과 총자산에 대비 퍼센트 비율을 제공해야 하며 대출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회에 연관된 기타 자금조달의 금액도 제공해야 합니다.¹⁷





ESG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

- '20년 국제결제은행(BIS)은 기후변화의 금융위험성을 경고한 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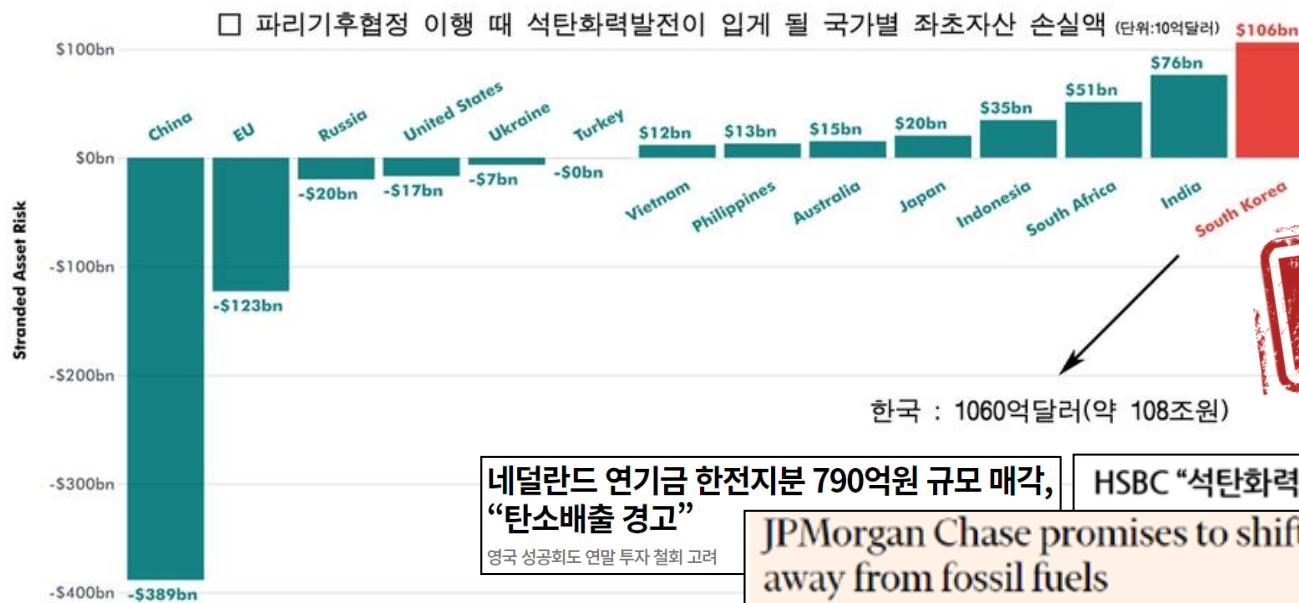




ESG투자 이유?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공개하라(‘21). 투자 시 ESG를 반영하겠다.
기후리스크 외면한 기업은 투자하지 않겠다(‘20)”

- 블랙록 Larry Fink's letter to CEOs



출처: ESG and Sustainable Investing Report, Morgan Stanley, '20.5



ESG 투자 5년새 60억弗서 1000억弗로...글로벌 자금 대이동

(글로벌 ETF 운용자산)

미국과 유럽의 주요 부대로 여겨졌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시장이 중국이 본격 가세할 움직임에 보이는 데에는 "ESG 주도권"을 놓칠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무게중심이 ESG로 급격히 이동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야 한다는 긴박감이 포착된다.

청문회 새중연구소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바이든 정부는 첨단기술 부문에서 대중국 압박을 지속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와 ESG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이라며 "중국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문학적인 글로벌 자금이 ESG 투자에 몰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착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와 기업만 외면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S(사회적 책임경영)와 G(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에 앞서 E(환경)에서만큼은 주도권을 잡겠다는 기류도 포착된다. 올해 중국 ESG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자산 규모는 처음으로 20조원(약 1282억위안)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ESG 투자 열풍으로 옮겨갔다. 지금까지의 ESG가 철학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다면,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경

불붙은 ESG 패권경쟁
美 ESG투자 277억弗 유럽
중도 관련펀드 20조원 돌파

구호에만 그쳤던 기업 ESG
코로나 이후 투자 원칙으로
도이치뱅크는 임원평가 반영

미래투자 주역 밀레니얼세대
"ESG반영해 기업투자 나설것"

험한 각국 정부와 기업, 연기금, 금융회사, 개인투자자 등은 전문학제인 자금을 ESG 투자에 쏟아붓고 있거나 쏟아 부을 계획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총9조달러(약 1경원)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30개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탄소중립(Net Zero) 자산운용사 아니셔널"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2050년까지 투자한 모든 자산군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ESG 투자를 현재 200억유로(약 26조원)에서 2025년 2000억유로(약 260조원)로 10배 늘리겠다고 발표한 도이치뱅크는 내년부터 고위 임원에 대한 보상을 ESG 투자 성과와 연계하겠다는 파격적인 계획을 선보였다.

금융위원회의 위원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단기 효율성보다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ESG는 잠깐 유행하다가 끝날 사안이 아니라 국제 정치·경제 질서부터 국가, 기업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걸친 영항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많은 통계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ESG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 세계 ESG 투자 자산은 40조5000억달러(약 4경 5000조원)에 이른다. 2018년 30조 6800억달러(약 3경4000조원)와 비교하면 1년 반 만에 약 1경원 늘었다. 폭발적인 증가세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2030년 전 세계 ESG 투자는 130조달러(약 14경 3000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때쯤이면 전 세계 투자 자산 중 95%가 ESG의 각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2015년 불과 69개, 60억달러에 불과했던 글로벌 ESG ETF 운용 자산 규모도 최근 370개, 1000억달러로 급증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미국 ESG ETF 순유입액은 277억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80억

ESG 글로벌 헤게모니 쟁탈전	구분	미국	중국	유럽(EU)	한국
*중국 투자에는 보스찬드와그리브 ESG 투자 자본-2020년 5월 14억4천만 달러	탄소중립 (대표 시장)	200년 탄소중립 (2025년 7월)	200년 탄소중립 (2020년 9월)	200년 탄소중립 (2019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 (2025년 10월)
	친환경 투자	10년간 1.7조달러 (약 1,670조원)	30년간 100조위안 (약 1.7경원)	10년간 1.3조유로 (약 1,300조원)	2025년까지 75.4조원
	연평균 투자	187조원	50조원	130조원	14.7조원
	ESG 펀드 규모	1,790억달러(약 200조원)	1,280억위안(약 2조원)	1조유로(약 1,300조원)	1.3조원

달러와 비교하면 자금 유입이 3배 이상 늘었다. 2015년 순유입액은 3억9180만 달러에 불과했다. 5년 만에 세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숫자다.

블랙록과 함께 ESG 투자 시장을 주도하는 스테이트스트리트(운용 자산 규모 3조1500억달러)에 따르면 글로벌 ESG ETF와 인베스 펀드 규모는 올해 1700억달러에서 2030년 1조 3340억달러로 8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 오대동 NH투자증권 리서치는 부장은 "환경 테마는 한 번 시작하면 100년 동안 지속되는 문제"라며 "ESG에 전문학적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SG 투자 자금의 원천은 국민연금공단(NPS), 한국투자공사(KIC) 같은 전 세계 연기금과 국부 펀드다. 약 700조원을 운용하는 네덜란드 최대공적연

금공유공사(APG)는 올해 초 석탄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한국전력 투자금 6000만유로(약 780억원)를 회수했다.

1조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인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청(NBIM) 수장인 니콜라이 탕엔(Nicolai Tangen)은 지난 10월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하면서 ESG 성과가 나쁜 기업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NBIM은 지난해 ESG 평가를 근거로 42개 기업 투자를 거둬들였다.

ESG 패권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는 밀레니얼 세대의 ESG에 대한 관심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모건스탠리 발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 중 95%가 ESG 요소를 반영한 책임 투자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는 일반인(85%)보다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2030년까지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서 물려받는 자산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68조달러(약 7경50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회만연 한국 블랙록 대표는 "글로벌 연기금과 국부 펀드들이 현재 ESG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며 "주주 이익 극대화보다 환경과 지역 사회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밀레니얼 세대 인식도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문지윤 기자
붙어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 급자를 판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국가의 성과를 가늠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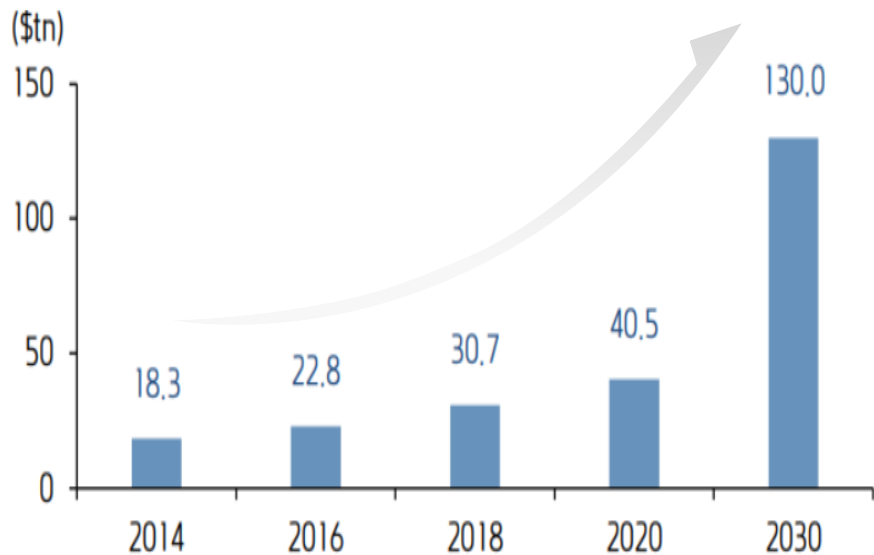


ESG투자 현황

글로벌 ESG 투자자산 규모

- '20년 40.5조 달러로, '30년까지 130조 달러로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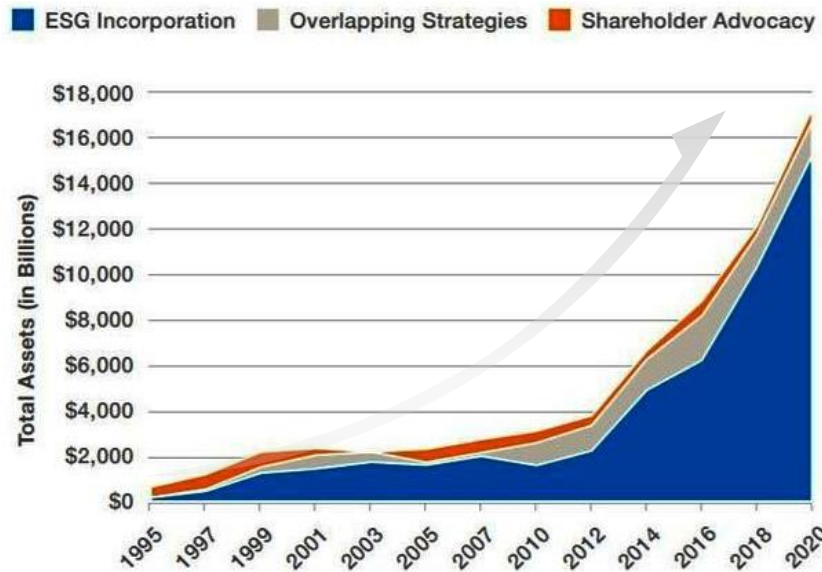
(단위: 조 달러)



출처: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21

미국 ESG 투자자산 규모

- '20년 17조 달러로, 매년 급성장(자산 중 1/3이 ESG관련 자산)
- ESG 中 기후변화(Climate change)가 주 투자대상



출처: US SIF(지속가능책임투자포럼) Foundation, '21



'21년 정부의 기후금융(녹색금융) 중심 ESG 시작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

비전

“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금융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
국민들과 함께 포용과 온기를 나누는 금융 ”

미션

- 미증유의 감염병발 위기를 잘서있게 극복**
-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를 적극 뒷받침**
- 금융산업 자체 경쟁력을 높여 한 단계 도약**
- 금융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금융포용성 제고**

추진전략

I.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관리 ①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② 한시적 금융지원조치의 점진적 정상화 ③ 잠재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II.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① 뉴딜펀드·뉴딜금융 시장안착 도모 ② 녹색금융 활성화 ③ 디지털혁신 뒷받침 금융인프라 구축 ④ 혁신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III.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① 언택트 금융 활성화 ② 핀테크 육성 가속화 ③ 지역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 추진 ④ 보험산업 혁신 도모 ⑤ 제재·인허가 절차개선 및 지배구조 내실화	IV.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① 최고금리 추가 인하 및 보완방안 추진 ②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 ③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및 보호 강화 ④ 소비자피해 집중분야 감독 강화

2050 탄소중립 뒷받침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전략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안)

정책금융 선도적 지원 • 정책금융지원 확충 • 저탄소 산업전환 뒷받침	민간자금 유입 유도 • 녹색분류체계 마련 • 녹색 포트폴리오 확대	시장인프라 정비 • 환경정보 공시공개 확대 • 책임투자 기초 확산
---	---	---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
세부과제

[1] 공공부문 역할 강화 ① 녹색분야 자금지원 확충전략 마련 ②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③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회』 신설 ④ 금융운용사 선정지표에 녹색금융 실적 반영	[2] 민간금융 활성화 ⑤ 『녹색분류체계』 마련 ⑥ 『녹색금융 모범규준』 마련 ⑦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시행 ⑧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 감독계획』 수립	[3] 녹색금융인프라 정비 ⑨ 기업 환경정보 공시/공개 의무화 ⑩ 『스튜어디십 코드』 개정 검토 ⑪ 『환경 표준평가체계』 마련 ⑫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	---	---



'21년 민간금융시장도 기후금융 동참

112개 금융기관, 기후위기 방관자 되지 않겠다



이날 기후금융 지지선언에는 KB, 신한, 우리, NH, 하나, BNK, DGB 금융그룹의 모든 계열사와 삼성, 한화그룹의 금융계열사가 참여했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연기금·공제회도 동참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은 참여하지 않았다. 자금운용 규모와 영향력이 막강한 이들 공적금융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년 민간금융시장도 기후금융 동참



TO-BE | 전담조직 有

AS-IS | 전담부서 無

추진 동력 미흡
☞ 소극적, 보수적

민간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
신한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 지속가능부문 (은행) ESG경영팀 	기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기획부 內 ESG경영팀 신설('21.1)
국민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 ESG전략부 (은행) ESG기획부 	산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G 뉴딜기획부 신설 ('21.1)
하나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 ESG경영TFT (은행) ESG경영섹션 	수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금융 전담조직 신설 ('21.1)
우리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 사회공헌부 (은행) 사회공헌부 	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금융추진단 신설 ('20.9, '21.1)



ESG금융 방식



ESG 평가기관

MSCI, Sustainalytics, KCGS, 서스틴베스트, 대신경제연구소 등의 ESG 평가기관의 등급 및 리서치 자료 활용

기관마다 평가 항목, 모델, 과정, 결과물 다름

ESG 평가등급



ESG 벤치마크

Screening, ESG 등급 등을 활용하여, ESG 관련 신규 지수 개발하거나, ESG 기존 지수를 투자에 활용

국내의 경우, ESG 지수 개발 필요

ESG Index



투자 프로세스 반영

기존의 투자 프로세스에 ESG 분석 과정을 추가하여 통합, 투자 결정 과정에 ESG 요인을 명시적으로 고려

Investment Universe 도출 과정에 적용

ESG Integration



영향력 행사 및 참여

경영진과의 대화/서신, 주주제안, voting 등을 통한 참여 (특히, 지분율 변화를 통해 영향력 행사 어려울 경우)

공적연금기금 등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ESG 기업활동 참여 전망

Eng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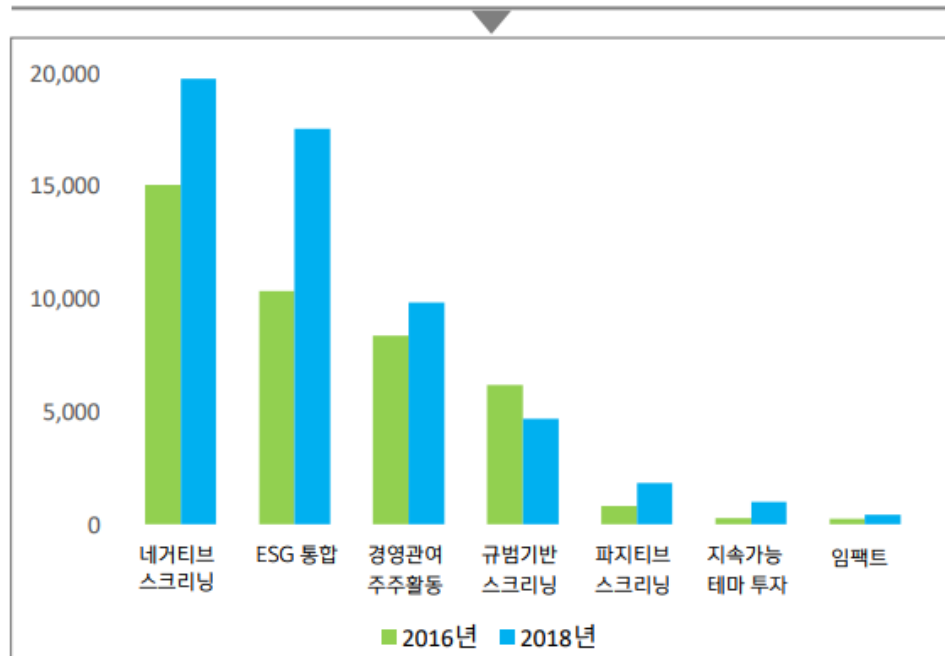
지속가능 투자전략 종류

전략	설명
네거티브스크리닝	ESG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 종목/산업에 대한 투자배제
파지티브스크리닝	ESG 분야의 가장 우수한 종목이나 산업에 투자
규범기반 스크리닝	글로벌 규범에 근거하여 특정 종목/산업에 대한 투자배제
ESG통합	전통적 재무분석 기법에 비재무적인 ESG 요소 추가
경영관여주주활동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기업 행동 변화 유도
지속가능테마투자	청정 에너지, 녹색 기술 등 지속 가능 테마에 집중 투자
임팩트	소외된 집단에 대한 투자, 환경문제 해결 등 공익적 투자

자료: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18

출처: 신한자산운용

지속가능투자 전략별 투자현황 (2016~2018년)



자료: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18, 십억 달러



ESG경영·투자는 일시적 국내 이슈가 아니라, 세계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ESG투자 강화방침 선언과 미국,EU 등 국가 차원의 법제화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 중인 현상

- ESG경영 목적: '착한' 기업 만들기 X,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기업 만들기 O

출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생태계 조성 및 입법 정책과제(국회입법조사처, '21.9)

1. 전 세계적으로 ESG시장 급성장

- 기업은 '19년 이후 본격적인 ESG경영 추진, 금융은 '17년 이후 기후변화 이슈로 본격 도입(ESG투자자산 35조원)
- 전체 투자자산 대비 ESG투자자산 비중은 유럽 49%, 미국 25%, 일본 18%으로 지속 상향
- 선진국 중심의 포괄적 ESG법제화(EU: CSRD, SFDR, EU Taxonomy 등)

2. 한국도 '20년 그린뉴딜, 탄소중립 계기로 ESG 시작

- (기업) ESG전담조직, 이사회 내 ESG위원회 신설, ESG경영 및 평가대응 열풍
- (정부,국회) 국회 ESG포럼 발족('21.3), 다수 ESG 관련 법안 발의

* '21년을 ESG경영지원 원년으로 삼겠다(대통령, '21)

3. 장기패러다임. 혼란과 이슈를 긴 호흡으로 해결해 나가야

- 금융사, 자산운용사, 평가사, 경영계,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가 각자시점에서 접근
- ESG워싱, K그린 텍소노미,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환경성 표준평가체제 개발, 탈석탄, 탄소중립 등

목 차

- 1 ESG경영 열풍 이유와 전망
- 2 ESG투자 현황 및 전망
- 3 중소기업 ESG영향 및 이슈

ESG경영 대응! 대기업 7점. 중소기업 4점(10점 만점)

기업규모별 ESG 대응 현황

※ 10점은 선진국 기준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준비 수준은?

(단위 : %)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의 ESG경영 現 주소는?

1 중소 ESG필요성 인식과 준비수준

- **중소 절반 이상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나, 4곳 중 1곳만 준비됐거나, 준비 중이라고 응답**
 - * 준비됐거나 준비 중(25.7%), 관련 준비계획이 없다(34.6%), 준비할 계획이다(39.7%)
-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ESG 경영 대응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준비 응답비율: 10억 미만(22.2%), 50억 미만(21.9%), 100억 미만(24.6%), 300억 미만(29.9%), 300억 이상(40.0%)
- **중소 절반 정도가 ESG 경영이 매출 등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
 - * 경영성과 향상(47.1%), 기업 이미지 개선(29.3%), 자금조달 여건 개선(9.8%), 거래처 요구(7.5%)
 - * 탄소 多배출업종인 화공(14.3%)은 거래처 요구에 따른 ESG 경영 필요 응답이 전체 대비 높은 편

2 중소 ESG경영 실천 현황과 취약 부문

- **중소, ESG 중 환경(E)(47.7%) 분야, 가장 취약**
 - * 환경(47.7%), 사회(32.8%), 지배구조(15.1%) 순으로 준비가 어렵다고 인식
-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등 자원소비 절감 부문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해당분야는 실천도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
 - * 난이도: 온실가스 저감(18.4%), 환경 법규 준수(16.7%), 근로환경(14.0%), 에너지 절감(12.6%) 순
 - * 실천도: 근로환경 개선(19.5%), 환경 법규 준수(15.7%), 공정거래(13.6%), 지역사회 공헌(9.9%), 윤리경영 등(9.4%), 에너지 절감(9.2%), 온실가스 저감(8.0%), 투명 회계공시(5.7%) 등
- **ESG 중 사회 부문(46.6%) 실천도가 가장 양호하고, 지배구조 부문 실천도는 다소 저조한 편**
 - * 부문: 사회(46.6%), 환경(32.7%), 지배구조(17.8%)
 - * 세부활동: 근로환경 개선(19.5%), 환경법규 준수(15.7%), 협력사와 공정거래(13.6%) 등

<p>3 ESG 대응 애로사항과 정부지원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경영 도입 시, 비용부담과 인력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 * 비용부담(37.0%), 인력부족(22.7%), 가이드라인 부재(16.3%), 도입 필요성 확산 부족(10.0%) 등 ·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은 정책자금(53.3%), 진단·컨설팅(38.3%), 가이드라인 제공(29.7%), 역량강화 교육(20.3%), 인센티브 제공(19.0%) 등
<p>4 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경영 확산) 中企 절반 이상은 ESG 경영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고 있었으나, 준비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中企 대상 ESG 인식 개선과 인센티브 방안 적극 도입하여, ESG 경영 실천 분위기 확산 필요 · (취약한 환경분야,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中企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등 자원소비 절감 등 ESG 중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탄소·친환경 부문 정책 지원 강화 필요 · (금융 등 다각적 지원) ESG 경영 도입시, 비용부담과 함께, 전문인력 부족, 가이드라인 부재 등을 애로사항을 꼽아, 자금 지원 이외에 진단·컨설팅, 가이드라인, 인력양성 등 다각적 지원 필요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게 ESG 영향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에 ESG경영을 요구하기 시작

올해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ESG경영 실적평가(위험), ESG경영 지원(기회)하기 시작



VS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까지 ESG경영을 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

글로벌 RE100, 298곳 돌파...애플, TSMC 등 대거 참여

문제는 RE100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이 협력 업체에도 RE100을 독려한다는 점이다. 기업 생태계가 협업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시대인 만큼 공급망 전체가 RE100을 실천해야 한다는 논리다. RE100의 선봉에 선 글로벌 기업에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에게는 고객 유지를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 BMW 사례를 비취볼 때 제조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마냥 업종 탓만 하며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일경제

친환경 에너지로만 공장가동...제조업에 부는 'RE100' 열풍

📄 A18면 1단 기사입력 2021.02.09. 오후 5:24 최종수정 2021.02.09. 오후 10:37 기사원문 스크랩

👤 본문듣기 · 설정

😊 2

💬 1

요약본

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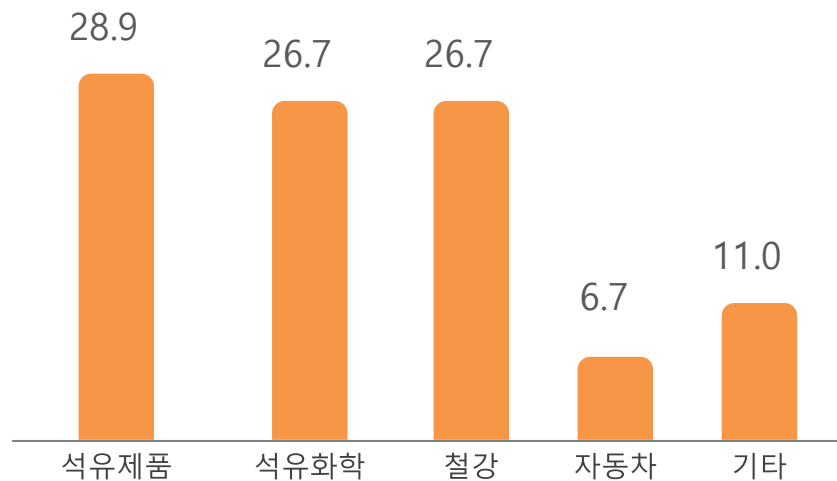
🔗

SK·LG·한화그룹 속속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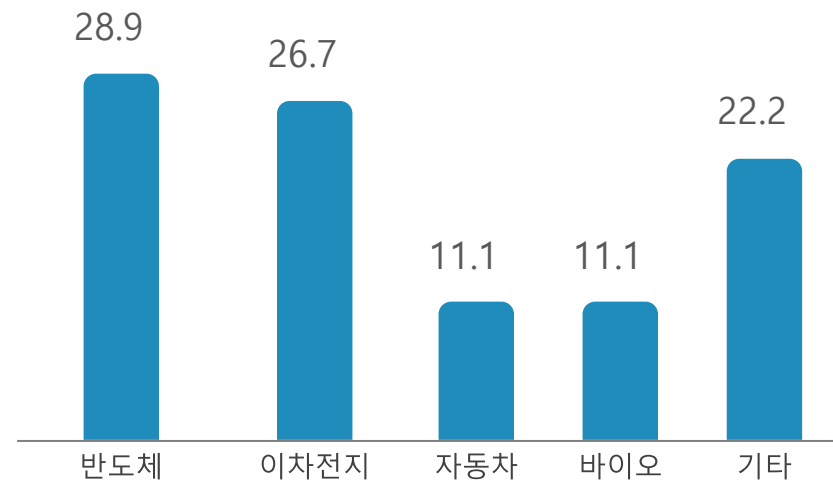
국내 제조업계에 이른바 'RE100' 열풍이 거세다. 100% 친환경 에너지로 공장을 가동하겠다고 선언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기업, 기관 등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도입한 '한국형 RE100' 제도를 도입하면서다. 기업들이 한국전력에서 녹색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인증에 활용할 수 있다.

유럽 탄소국경세 등 ESG 무역장벽 가속화로 수출기업 피해 우려

ESG 타격받을 수출주력 산업(%)



ESG 전망 밝은 수출주력 산업(%)



수출기업들은 국제 ESG 규제에 대한 대응에 착수해야..

EU, ESG 법안 속속 도입..수출기업들 ESG규제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지속가능금융공시 규정, 비재무 정보보고, 공급망 실사 등
ESG 준수 기업 중심, EU 공급망 재편 전망...기회 활용해야
EU ESG규제 단기적 무역장벽..."중소중견 ESG지원책 필요"

[EU의 ESG 규정 관계도]



1. 6대 환경목표/4대 판단조건을 제시하여 기업의 친환경경영 판단기준 수립
2. 공급망 기업의 친환경경영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 제시
3.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금융기관의 자본유입 촉진 및 그린워싱 방지
4. 기업 전 밸류체인의 ESG 준수여부 및 경영활동 공시

"ESG 법제화하는 EU... 국내 기업엔 장벽 아닌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비재무적공시와 공급망의 환경 인권 보호 감독에 대한 자체 규정 수립에 나섰다. 공급망 기업의 ESG 정보 추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대비도 하고 있다.

보고서는 "ESG 규정 준수가 EU 수출 및 EU 기업 공급망 선정의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 기업이 ESG 규정을 준수하는 경영활동과 이에 대한 입증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중국에 편중됐던 EU의 공급망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배포일

2021. 04. 22. (목)

담당자

신현식 비서관, 남혜민 비서

강훈식 의원 “ESG 경영 중소·벤처기업 지원법 발의”

- 강훈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기금 운용·관리에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등 사회적 요소 고려 가능
- 강훈식,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모색하는 기업 지원할 것”

중소·벤처기업이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을 통한 지원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외에 납품하는 **수출 중소기업**의
신속한 역량강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높다.



금융기관도 중소기업 ESG경영 여부를 고려하기 시작

그룹 탄소배출량 관리

파리기후협약(2°C 시나리오) 기반의 과학적 틀을 활용한 감축 목표 수립 (SBTi¹⁾ 1.5°C 및 SBTi SDA²⁾ 2°C 시나리오)

내부 탄소 배출량

46.2%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38.6%

(2019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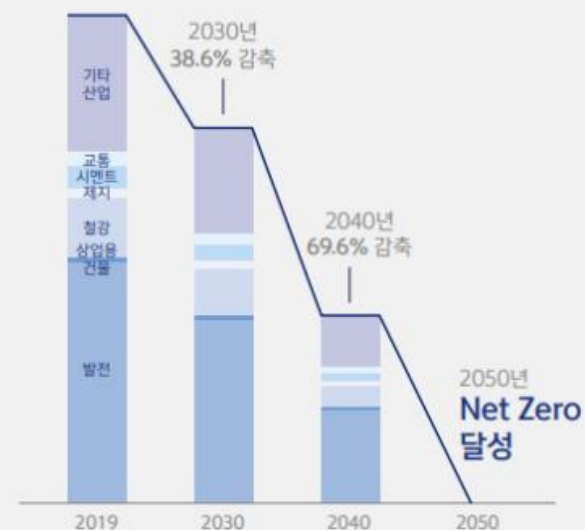
내부 탄소배출량

SBTi 1.5°C 시나리오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SBTi 2°C 시나리오



¹⁾ SBTi(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 과학적 시나리오(파리기후협약)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²⁾ SBTi SDA(Sectoral Decarbonization Approach), 섹터별 탈탄소 접근법: 금융자산의 탄소배출량을 산업별(발전/부동산/철강/시멘트 등)로 분류하여, 산업별 시나리오에 따라 감축 목표 산정


금융기관도 중소기업 ESG경영 여부를 고려하기 시작

기관명	감축목표	발표 일자	목표연도	TCFD 활동 및 관리 계획
ING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7년부터 운영부문 탄소중립 달성 2020년까지 2014년 기준 50% 감축, RE100선언 	2014.1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까지 석탄 관련 여신 제로화 2018년 글로벌 최초 6천억유로 대출 포트폴리오의 기후시나리오 분석 2022년까지 저탄소 편당&여신 규모 2017년 기준 두배 확대 목표
Barclays PLC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포트폴리오 넷제로 달성 	2020.3	2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내 세부 목표 발표 2021년부터 성과 보고서 발간 예정
BNP Paribas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탄소 중립 목표 발표 2020년 직원 CO2배출량 25% 감축 	2018.4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7년 세일가스 산업 투자 중단 저탄소 전환 기업 투자 1억 유로 배정
Citigroup Inc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 저탄소 자금조달(환경재정목표) 2,500억달러, CO2 45% 감축 목표 	2020.7	2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4~2019년 저탄소 자금조달 천억달러 달성 2025년까지 2,500억달러 목표 2025년까지 CO2 45% 감축
ANZ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50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넷제로) 지원 	2019.10	2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30년까지 발전 부문 투자는 재생에너지와 가스 발전으로 한정, 배출규모 100대 기업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2021년까지 저탄소 전환 계획 개발 유도
HSBC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달성 2030 RE100선언, 2도씨 시나리오 감축목표 수립 	2020.10	2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탄소 전환 부문에 향후 7500억~1조 달러 투자
DBS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50년까지 고객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목표 수립 없음 	2020.10	2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4년까지 청정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100억 달러, 기타 녹색 사업 및 자산에 100달러 추가 자원 조달 목표
Lloyds Banking Gro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50% 감축 영국 넷제로 지지 	2020.1	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탄발전, 석유, 가스 관련 투자 제한 저탄소 자동차 관련 부문 지원

ESG금융 지원프로그램

금융 지원

1. ESG 선언기업 대상 저리대출 제공
* ESG 경영 선언문 제출시 금리우대
2. ESG 실천기업 대상 저리대출 제공
* ESG 중 특정활동 선택 후 계획제출 → 대출만기시 이행실적 평가



Category	Exampl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in the energy efficiency rating of buildings and/or machinery owned or leased by the borrower.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in relation to products manufactured or sold by the borrower or to the production or manufacturing cycle.
Renewable energy	Increases in the amount of renewable energy generated or used by the borrower.
Water consumption	Water savings made by the borrower.
Affordable housing	Increases in the number of affordable housing units developed by the borrower.
Sustainable sourcing	Increases in the use of verified sustainable raw materials/supplies.
Circular economy	Increases in recycling rates or use of recycled raw materials/supplies.
Sustainable farming and food	Improvements in sourcing/producing sustainable products and/or quality products (using appropriate labels or certifications).
Biodiversity	Improvements in conservation and protection of biodiversity.
Global ESG assessment	Improvements in the borrower's ESG rating and/or achievement of a recognised ESG certification.

3. ESG 우수 평가기업 대상 저리대출 제공
* 국내 ESG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수검받고, 일정수준 이상 등급 획득시 금리우대
4. ESG 우수기업/사업/채권 중점 투자

비금융 지원

1. 중소기업 ESG진단 지원
* IBK기업은행 중기 ESG경영진단 프로그램
2. 중소기업 ESG 경영컨설팅 지원
* 환경, 에너지, 노무, 인사 등 맞춤형 ESG 경영 컨설팅
3. 중소기업 ESG 경영 홍보 및 정보제공
* 중소기업 ESG경영 가이드북, 온/오프라인 교육
4.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5. 중소기업 온실가스감축, 탄소배출권 발굴 지원



중소기업 ESG 주요 이슈

1. 정부의 중소기업 K-ESG 지표개발 및 평가의 적절성 논쟁
 - * ESG경영과 ESG투자 혼돈에서 비롯한 문제
2. 중소기업 ESG평가기관 신뢰성, 평가정보 부족 논란
3. 중소기업 ESG지원 컨트롤타워 아쉬움
4. 중소기업 ESG 지원정책 미흡
5. 국내 중소기업 ESG전문가 풀 부족
6. ESG투자 대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난항 및 중소기업 소외 우려
 - * 예) 중소기업 內 녹색투자활동은 대부분 K-그린 Taxonomy에서 제외
7. 쏟아지는 ESG 정책과 입법 피로감 우려